

# 도의회 예결위, 추경예산안 심사 의결

### 전북도 7조5677억원 중 '지진 옥외대피소 안내지도 제작' 등 12건 8억7450만원 삭감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김대오 위원장(익산))은 18일 전북도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차례 걸친 예산안 심사로 전라북도 201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총 7조5,677억원 중 '지진옥외대피소 안내지도 제작' 1억2,480만원 등 12건 8억7,45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주요 심사·의결 사항으로는 각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회부된 상임위 삭감사업 '정보시스템실 노후장비 교체', '악취시료 자동채취장치 구입 지원' 등의 사업은 상임위의 삭감 의견을 존중하여 의결했다.

소방본부에서 요구한 '소통·유구·동계 119지역대 이전신축에 따른 물

품구입비(1억3천6백만 원)에 대해서는 119지역대가 하반기 착공예정인 준공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남아있으므로 공사 추이를 살펴 물품구입 예산은 차후에 반영토록 요구하며 삭감했다.

도민안전실의 '무더위쉼터 소형파라솔 지원사업(1억8천만 원)'은 무더위쉼터(4,795개소)에 이미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 야외에 별도의 파라솔 설치보다는 실내 에어컨 전기료 사용료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지적했다.

'지진 옥외대피소 안내지도 제작(1억2,480만원)'은 개당 80만원인 안내지도 510개를 제작해 설치하는 것에 효과성의 의문을 제기하며 이보다는 대피장소를 휴대폰 어플이나 도·시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것을 검토해 볼 것을 주문하며 삭감했다.

복지여성보건의료국 '독립선언서 한지책자 제작 및 이어쓰기 운동(1천만 원)'과 '독립유공자 후손 예우사업(4천만 원)'은 사업의 타당성을 지적하면서도 올해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및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우리민족의 독립정신 및 독립유공자의 활동내용 등을 널리 알리는 데에 초점을 맞춰 추진해 줄 것을 요구하며 원안대로 가결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 심사에 있어 주요 이슈였던 산업·고용 위기지역 지원 사업 8건의 166억원과 미세먼지 저감대책 관련 사업 22건 383억원 등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 당부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집행부의 깊은 고민을 요구하며 원안 가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번 예산안

심사에 있어 편성방향의 타당성, 추경 사유와 시기의 적절성 여부, 공약사업의 우선순위 및 사업시기의 적절성, 주요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 절차의 이행여부 등을 기본 심사기준으로 전제하고, 일자리 및 생활 SOC, 미세먼지·약취 등 도민 불편 해소, 안전 등 도민의 생활 안정에 주요점을 두고 심사했다.

김대오(익산) 예결위원장은 예산안 심사와 관련 "올 하반기는 고용산업 위기 극복 및 서민생활 안정에 집중해야 할 시기"임을 강조하면서 "어렵게 확보된 예산과 의회의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통과된 예산이 적기에 충실히 집행되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예결위에서 의결한 예산안은 19일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김진성 기자



한수용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노인복지특별위원장(가운데)은 지난 17일 산불 피해 지역인 강원도 속초시와 고성군을 방문, 지역 농민들을 위해 2억원에 달하는 비료 5만포대를 전달했다.

## “강원 산불 피해 복구에 써주시길”

### 한수용 민주 도당 노인정책특별위원장 비료 5만포대 전달

한수용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노인복지특별위원장이 강원도 산불피해 복구를 위한 통 큰 기부로 화제가 되고 있다.

한 특별위원장은 지난 17일 산불 피해 지역인 강원도 속초시(시장 김철수)와 고성군(군수 이경일)을 방문, 지역 농민들을 위해 2억원에 달하는 비료 5만포대를 전달했다.

이번 비료 전달은 화마로 인해 지역 농토가 황폐화 되어 농작물을 재배할 수 없게 되었다는 소식을 지역 민들로부터 전해 듣고 농지 개량을 위해 특별히 농민들을 위한 물품기부로 이뤄졌다.

현재 속초시와 고성군 일대 농가들은 4월 20일을 전후로 지역 특산물인 고추를 재배하기 위해 퇴비 등을 비축해 놓았지만 이번 산불로 전량이 소실되는 피해를 입게 되어 망연자실한 상태였다.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농가들은 한해 고추 농사를 포기해야하는 절박한 상황에서 이번 비료 전달이 그 무엇보다 값진 위로가 되었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한 특별위원장은 이번 지원을 위해 긴급하게 농지 개량 비료를 마련해 17일부터 20일까지 25톤 트럭 40대를 투입, 속초시와 고성군으로 운송을 진행했다.

한수용 특별위원장의 기부에 대해 김철수 속초시장과 이경일 고성군수는 "갑작스런 화마로 삶의 터전을 잃고 생업까지 포기하게 될 상황에 빠진 농가들에게 너무 큰 도움과 위로가 되었다"며 "성금도 중요하지만 농민들에게 절실한 물품을 기부해준 한수용 특별위원장에게 강원도민들과 함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수용 특별위원장은 "우리 민족은 어떠한 위기에서도 서로를 돕는 근성이 있어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눈부신 발전을 이어나온 것 같다"며 "산불로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강원도민들에게 작은 도움이 될 수 있어 다행이다"고 말했다.

한편 한수용 특별위원장은 현재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4050 특별위원회 부위원장까지 역임하면서 지역과 국가 발전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김진성 기자

## 홍영표 "공수처, 판·검사 수사때만 기소권 부여? 안될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바른미래당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판사와 검사를 수사할 때만 예외적으로 기소권을 갖자는 내용의 협상안을 제안했다는 보도와 관련 "제한한 적이 없다. 그런 건 있을 수 없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모두 갖춘 공수처가 필요하다"며 반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은 기소권과 수사권이 모두 있는 공수처에 대한 입장에서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뉴시스

## 김경민 바른미래 당당부위원장 "순חק규 흔들기 중단하라"

김경민 바른미래당 전라북도당 수석 부위원장은 18일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지도부의 순חק규 대표 흔들기에 우려와 함께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중앙당 사회적경제위원장이기도 한 김 부위원장은 "당의 발전과 대량제정착을 염원하는 당원의 한 사람 자격으로 이 자리에 있다"며 "최근 당 지도부 인사들의 손 대표 흔들기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당을 흔들고 있는 분들이 오히려 당의 혁신을 거부하고 있다"며 "손 대표 흔들기를 중단하고 만약 동의하지 않으려거든 당을 떠나달라"고 외쳤다. /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1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 “장애인 정책 개선됐지만 아직 갈 길 멀어”

### 이낙연 총리,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18일 "장애인에 대한 정책과 자제가 많이 개선돼 왔지만 아직도 갈 길이 멀다"며 "그 동안 점에서 우리는 아직 선진사회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63빌딩에서 열린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이렇게 말한 뒤 "장애인들이 차별과 손해와 불편을 겪지 않는 사회가 선진사회다. 그런 사회에 하루라도 빨리 도달하도록 정부가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문재인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권익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동안 잘못됐던 정책은 시정하고 미흡했던 정책은 보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의 권익과 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과제에 대해 짚었다.

그는 먼저 장애인 등급제 폐지와 관련, "기존 혜택이 줄어들거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장애인 연금에 대해서는 "그동안 25만원씩 받아온 장애인 연금 기초급여도 이월부터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오르게 2021년까지는 모든 연금 수급자가 기초급여를 올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시설 밖 장애인과 관련,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면 주거 서비스와 직접 정착금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장애 청소년 돌봄 서비스를 올해 4000명으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전제로 확대하고, 성인 장애인 주간활동 지원 대상을 올해 2500명으로 시작해 늘려가도록하겠다"고 했다. /뉴시스

## 김광수 의원, '노인복지 메카 전주' 노인대학 특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북 전주)은 18일, '노인복지의 메카 전주를 위하여' 라는 주제로 진행한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전주노인대학 초청 특강에서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에 전주시 선정과 국회 등원 후 100번째 민생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노인일자리 지원법' 등을 기반으로 전주시가 노인복지의 메카로 나아갈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총소득이 처음으로 3만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되었으나,

역설적으로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1위"라며 "노인빈곤과 소득불평등뿐만 아니라 자살 등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며, 존경 받고, 존중되어야 할 어르신들의 기본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지 못한 채 경제적·사회적으로 고독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사회에서 어르신들이 자신의 경험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 복지정책 및 노인 일자리 활성화를 통한 활기찬 고령사회의 구현에 나서야 한다"며 "특히, 지난 4일 보건복지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에 전주시가 선정돼 국비 7억원을 확보한 만큼 전주가 지역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과 노인일자리 활성화에 앞장서 노인복지의 선도도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진성 기자

**별빛마실기간 4.22.~6.3. (월) 18:30**

점등식 | 4.22. (월) 18:30

# 부안 마실축제

2019. 5. 4. (토) ~ 5. 6. (일)